

트렌드 & 스타일



신세대 연애 풍속도

사랑도 '3·6·9'

→ '속전속결' 3개월마다 애인 바뀌... 게임하며 연애 '게임연인' 유행

양은 밤비가 굶다 식 듯, 요즘 젊은이들은 이성과 쉽게 만나 헤어진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의 외모와 취향을 먼저 확인하는 '찍팅'이 보편화됐고, 인터넷을 통해 연애 상담도 받는다. 3개월 마다 애인이 바뀐다는 '3·6·9의 법칙'이 지배하는 신 연애 풍속도는 게임 속 가상의 애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 3·6·9월에 한 번씩 애인 바뀐다

최근 대학생들의 미팅, 소개팅은 새 학년을 시작하는 3월과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집중되고 있다. 대학생 A군이 3, 6, 9월에 미팅 소개팅을 모두 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월 마다 새로운 이성과 만나는 꼴이다.

지난해 대학 매거진 '짱'과 취업사이트 '파워잡'이 대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2006 대학생 연애관'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약 30%가 평균 연애기간을 100일로 꼽았다. 이어 ▲1년 22.4% ▲한 달 12.4%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기간인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학기 초(3월), 기말고사가 끝나 부담이 적은 6월 말,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초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공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소개팅 상대는 홈페이지에서 찍는다

대학생 김모(26)군은 후배로부터 여자친구를 소개받기로 했다. 김군이 소개팅 날짜를 기다리면서 후배에게 요구한 것은 전화번호나 그 여성의 일반적인 프로필이 아닌 홈페이지 주소. 김군은 주소를 받아 본격적으로 그녀에 대한 뒷조사에 들어갔다. 사진과 게시물을 뒤져 그녀의 외모·취향·인간관계에 대해 파악했다.

가장 공을 들인 건 글을 남긴 방문객의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속칭 '파도 타기'를 통해 그녀의 남자관계를 파헤치는 것. 과거 남자친구의 사진이나 글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정리하지 않으면 다운로드 받은 주변 사람들의 홈페이지에는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의 홈페이지를 통해 맘에 드는 이성을 찾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직접 상대방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소개팅 대상을 찍는 것은 '찍팅', 홈페이지 댓글을 보고 상대방의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것은 '덧팅'이라고 한다.

→ "옛날 남친이 지금 공격해 귀찮아요"

이모(21·조선대 2년)양은 최근 고민이 생겼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이양은 지난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을 쉽게 키울 수 있도록 리니지 게임 고수인 A씨(34)와 '게임 애인'관계를 맺었다. '몰'이라고 불리는 괴물을 제거하면 캐릭터의 능력치가 오르고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주지만 초보였던 이씨가 상대하기에는 힘이 너무 강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양은 A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캐릭터를 키울 수 있었지만 A씨가 현실에서의 만남 등을 요구하자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게임상에서 이양을 만나면 공격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이양을 괴롭히고 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게임 연인' 풍속도를 만들고 있다. 게임 접속자들이 따르면 '리니지2'의 경우 한 달에 2천여명이 만났다 헤어지고 있으며, '마비노기'도 4천여명이 게임 속 사람을 나누고 있다.

→ 연애 상담 선배보다 인터넷이 좋아

경험이 많은 직장상사나 학교 복학생이 답해 연기 자숙한 솔직에서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후배에게 조언과 위로를 건네는 풍경은 옛날이다.

최근 젊은이들의 '연애 상담'은 인터넷에서 이뤄진다. 그만큼 빠르고 쉽다. 포털 사이트 다음 등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같은 처지에 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나?..' 등 달 사귀 남친이 요즘 수상한 행동을 하는데 새로운 여자 사귀는 것인가?..' 등의 연애 상담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네트즌들이 이 같은 게시물에 뜨겁게 화상질 갈 때 따라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라, '수상하면 헤어져라' 등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 유행할 커플룩



2007년 유행할 '커플룩'(couple-look)을 입은 커플.

'따로 똑 같이'

'쌍둥이 옷' 피하고 느낌은 같게

들만의 기념일 혹은 밸런타인 데이나 화이트 데이에 연인들끼리 옷이나 소품을 맞춰 하나임을 과시하는 커플룩. 예전엔 남녀가 똑같은 색상,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는 '원색 코드'였다면, 요즘에는 '완벽적인 컬러러'보다는 파스텔 계열의 비슷한 색상을 더 선호하며 동일한 디자인이나 소재에 색상을 다르게 매치해 통일감을 추구한다. 이 같은 변화는 개성을 추구하는 신세대들의 취향이 반영된 것. 올 신세대 '트렌드세터'(trendsetter :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는 자신만의 스타일도 살리고 '한 쌍'임을 과시하는 커플룩이 많다.

청바지와 티셔츠로 연출을 할 경우 남자는 연둣빛, 여자는 겨자색 등 비슷한 계열의 색상을 즐겨 입는다. 분위기는 빈티지(웃자락 끝이 닳아지거나 색이 바랜 듯한 의상) 풍의 일관성 있는 코디가 대세. 벨트 같은 소품을 거슬러쳐 반사할 정도로 반짝거리는 '미러실버'(mirror-silver)로 매치해 포인트를 준다. 티셔츠는 인물이나 화려하고

큰 문양의 프린팅이, 청바지는 핏주머니에 스팅글(spangle : 광택과 반짝임이 강해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는 소재)이나 큐빅 장식을 하거나 원색의 컬러 스티커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이 인기라고 한다.

미니스커트의 경우 블랙 계열을 선호한다. 화이트 톤의 벨트로 매치하고 에나멜(enamel :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큰 사이즈의 가방이나 반짝이는 소재의 헤어밴드 같이 화려한 액세서리를 활용해 포인트를 준다.

눈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실버 컬러와 금속 노끈이 나는 차가운 소재는 올 봄과 여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트렌드(Big Trend). 만일 화려함이 부담스럽다면 액세서리를 적극 활용해 유행을 따르면서 과하지 않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한창진 여성팀장은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있고 똑같이 양면이 통일감을 주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데이트는 어디서

폰팅으로 만나 DVD방서 데이트

인터넷 채팅으로 이성을 만나는 것은 이제 고전이다. 연인들의 단골 데이트 장소였던 분위기 좋은 카페나 장소도 외면 받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 채팅보다는 모바일 채팅·폰팅을 선호하고 있다. SK 텔레콤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러브 미팅', '내가 찾는 연인', '사랑에 감 러브팅', '사랑은 폰을 타고' 등의 미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 가입하면 '여친 소개받기', '남친 소개받기'가 서비스되며, 지역별로 연인을 찾을 수도 있고, 사진을 미리 볼 수도 있다.

9일 현재 '내가 찾는 연인' 서비스는 광주·전남지역에서 1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마음에 드는 이성의 실시간 위치(상대가 허락할 경우)를 알아보거나 직접 전화 통화도 걸 수 있다.

인터넷에는 연인을 찾아 주는 사이트가 성업 중이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애인 만들기', '여친 구하기' 등의 검색어를 치면 관련 업체와 홈페이지 주소가 컴퓨터 화면에 줄을 잇는다. 화상 채팅이 보편화 되면서 상대를 화면으로 미리 확인하고 만나는 '화상 번개팅'도 유행이다.

인터넷과 영상이 익숙해진 젊은이들은 외부보다는 DVD(digital versatile disc) 방 등 밀폐된 공간을 선호한다. 대학가와 학원가의 DVD 방은 집에서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폭신하고 넓은 소파 등이 마련돼 있다. 초고속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원룸이 늘면서 아예 밖을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만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이들도 많다.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2'의 결핵식 장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선 게임을 하며 인터넷 상에서 연애를 할 수 있는 '게임 연인'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2'의 결핵식 장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선 게임을 하며 인터넷 상에서 연애를 할 수 있는 '게임 연인'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reas including Daegu, Gwangju, and Seoul.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LC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효성공인중개사', '토우드공인중개사', '다우공인중개사', and '법원경매'.